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계 '제2의 건국 운동 실천다짐대회' 열어

전 기공사업계가 제2의 건국 운동에 앞장섰다.

전기공사업체 대표자 450명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2의 건국 운동실천다짐대회'를 열었다.

전기공사업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제2의 건국 실천방안으로 전력설비의 새로운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풍토 조성 및 성실시공을 생활화하여 21세기 전력문화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제2의 건국 운동 실천강령'을 채택하고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제2건국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구시대적인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국가기간 설비인 전력설비의 시공주체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소비생활문화를 통해 국가 경제위극복에 앞장서 범국민적 부정부패 추방운동에도 동참하고 깨끗하고 알찬 경영으로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450여명의 전기공사 대표자들은 이번 제2의 건국 운동 실천다짐대회를 통하여 전기공사업계의 새로운 각오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표명의 '제2의 건국 실천구호'를 남부지부 최해춘 회원의 선창과 함께 힘차게 제창했다.

이날 한국전기공사협회 김창준 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전기공사업계도 21세기 국제화·선진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공기술개발과 의식개혁운동에 적극 앞장서자"고 강조하고 전국각지에서 이른 새벽부터 참가해 주신 협회이사, 지부장 및 회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창준 회장은 이어 "한전이 우리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1조원규모의 배전예산을 증액해준데 대해 1만1천여 회원사를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창조적 사고로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부실시공을 타파해 21세기 새로운 선진전력문화를 창달하자"고 당부했다.

LG전선(주)

서인천-신부평 地中送電線路 건설공사

LG 전선(대표: 權焯久)이 韓國電力으로부터 345kV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지난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공사는 늘어나는 경인지역 산업단지 및 수도권 대도시의 전력수요를 대비하고 정보화 시대에 따른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4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공사는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와 신부평 변전소 17km 구간을 지하 송전 전력구로 연결하며 케이블 총연장 102km에 이르는 345kV 지중송전선로

단일 공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LG전선은 이 공사가 완공되면 공장이 많고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인천, 부평과 수도권 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선은 4월부터 공사를 착공, 2002년 4월까지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케이블 액세서리 등 자재를 포함해 총 공사비는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선 최종현 부장(전력시설부문)은 "이번 공사는 성동-미금, 당인리-양주, 남부산-북부산에 이은 대규모 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로 47개의 접속사이트를 포함한 국내 345kV OF 케이블 공사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장은 또 "이 공사는 지중선로로 건설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원 문제를 해결했으며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선은 최근 서인천에 설치된 LG전선 현장사무소에서 한국전력의 정태호 처장(전력계통건설처), LG전선 양창규 전무(전력사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공사기원식을 가졌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KS제품심사 돌입

전 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양시백)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 초

까지 52개업체에 대한 KS(한국산업표준규격) 제품심사에 들어갔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의거, 1년마다 한번씩 제품심사를 받고 있는 전선류 KS 고시품목은 600V 비닐절연 전선을 비롯, 600V 비닐코드, 600V 고무절연캡타이어코드 등 3개종이다.

특히 이번 KS 심사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주관청인 중기청이 하던 업무로 전선조합이 인증업무를 대행케 됨으로써 제품심사 및 시판품 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주)

세계 최대 200MW급 디젤발전소 준공

현 대중공업(대표 : 趙忠彙)은 세계 최대 200MW급의 디젤발전소를 印度 마드라스市에 완공, 3월 28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발전소는 '96년 11월 현대중공업이 印度 GMR社(GMR Vasavi Power Coporation Pvt. Ltd.)로부터 턴키 베이스로 수주한 세계 최대규모의 200MW급 디젤발전소로, 2년 4개월여의 공사를 거쳐 이날 印度 남부 타밀나두(Tamil Nadu)州의 항구도시인 마드라스(Madras)市에서 준공되었다.

현대중공업이 이 발전소에 설치한 엔진은 7만 4천마력급(5만 2천kW급)의 초대형 低速엔진 4기로, 같은 용량(200MW)일 때 中速엔진이 11기가 설치돼야 하는데 비해 운전과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연료비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96년 국제경쟁입찰에서 中速엔진업체인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세계 유수기업을 제치고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또 이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부대설비인 냉각설비(Cooling System)가 지하수나 상수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업계 최초로 발전소 주변의 생활 오·폐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새로운 시스템(Sewage Treatment System)을 개발, 하루 1만톤의 오염된 下水를 淨化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전력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발전소로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內燃기관인 디젤발전소가 기술의 한계로 100MW급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발전소는 주로 外燃발전소인 火力, 原子力, 水力발전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완공함으로써 디젤발전소의 대형화를 이룬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엔진의 23%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의 엔진제작 공장을 보유하고 세계시장에 앞서가는 엔진제작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지금까지 세계 최대급의 7만마력 이상의 엔진 10여기를 제작, 5,500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탑재,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高速化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印度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잠재력이 무한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東·西南亞 발전설비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현지에서 있는 준공식에는 현대중공업 金炯璧 회장과 GMR社 지 엠 라오(G. M. Rao) 회장을 비롯하여, 印度 타밀라두 州 카루나니디(M. Kagunanidhi) 首相, 타밀라두 州 무리솔리(Murasoli Maran) 전력청장관 등 고위인사와 관계자 5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수영전기기업(주)

중대형 UPS 상품화

수 영전기기업(대표 : 金學後)이 업계 최초로 병렬접속형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입출력 방식의 중형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개발, 본격 공급에 나섰다.

지난해 9월 LG산전 UPS사업부와 연구개발 인력을 인수한 이 회사는 그동안 LG산전 UPS사업부가 진행해 왔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간 개발에 나선 끝에 이를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총 3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 100, 200, 300kVA 중대형 용량의 제품군으로 보드내 입·출력부에 모두 IGBT 부품을 사용해 일반적으로 10%대인 제품의 입력부·출력과 왜율을 각각 3% 이하로 낮췄다.

특히 병렬접속형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방식으로 설계되어 손쉽게 용량을 확장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제어 및 관리도 가능하다.

수영전기 측은 「기준에 사용하던 UPS용 사이리스터를 IGBT로 대체해 LPS 시리즈에 적용함으로써 0.98의 높은 전원 출력 역률치를 실현, 0.8 수준인 기존 제품보다 사용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사는 이번에 개발된 제품 중 300, 200, 75kVA 장치 7세트를 최근 인천 국제공항건설공사 측에 6억원에 공급기로 계약, 오는 6월까지 설치하게 된다.

UPS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수영전기는 협력사인 미국 IPM의 모델을 바탕으로 기존의 BPM을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LPS 모델로 대체기로 했다.

수영전기는 올해 19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전기공(주)

한전기공, 창립 15주년 맞아 성남시 분당구 새사옥으로 입주

한 전기공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새로 건립한 본사에서 외빈과 직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15주년 및 신사옥 입주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시공사인 성원건설에 감사패가 주어졌고 관련 유공직원 및 '99한공인 수상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이용신 사장직무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의지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기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전력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2창사 정신으로 제2건국운

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밝혔다.

한전기공 신사옥은 지상 17층 지하 3층 연면적 8,350평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96년 7월 착공에 들어가 2년 7개월의 공기를 거쳐 올해 2월 완공됐다.

대한전기학회

한일간 전기학술 교류 활성화 한·일 전기학회, 우호증진 방안 등 논의

전 기와 관련된 한일간 학술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박상희 대한전기학회 회장(연세대 공대 교수)은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야마구치대학에서 개최된 제29회 일본전기학회 전국대회에 참가, 학술 교류 확대 및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상희 회장은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 대회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박회장은 3월 26일 동경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일본지부 총회에 참석해 해외 회원들을 격려했다.

대한전기학회와 일본전기학회는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박상희 회장 외에 이은용 부회장(충남대 교수), 박종근 국제이사(서울대 교수), 진동신 사무국장 등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했다.

대표단은 일본 전기학회 대표들과 출판물 발간 및 ICEE국제학술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 학회간 공동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6000여명이 참가, 2천 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고효율발전, 초전도, 로봇, 교통시스템, 전기자동차 등을 주제로 200여회의 심포지움을 열었다.

일본 전기학회 전국대회는 일본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알려져 있으며 개최지 문화와 역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전우클럽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 기계 원로 모임인 電友클럽(회장 서석천)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5일 양재동 스포타임 연회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0세 이상의 회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되었는데, 우형주 명예회장의 전우클럽 25주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본 회고담과 김중태 선생의 '원효결서의 주제-개벽'이라는 제목의 특강 등이 있었다.

지난 '74년 원로 전기인들의 친목단체로 설립된 전우클럽은 전기산업의 발전과 전기계 단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1회 열리는 회원간담회를 통해 전기계 원로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있다.